하나님은 나귀도 사용하십니다.

성경본문 〈민수기 22장 21절 ~ 33절〉

[21]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22]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23]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24]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25]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26]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27]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29]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31] 그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2]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기 때문에 당하고 있었던 고초와는 상관없이 그들을 바라보는 다른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였고, 백성들 또한 그 말에 동의했지만, **정작 그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적극적 호소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하는 자리를 향해 출발합니다. 처음 발락의 사신이 와서, 그와 같이 해 줄 것을 요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재요청하였을 때,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 증거가 다시 기도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알게 하셨지만, 반복해서 묻는 발람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에 한 천사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발람, 그리고 발람과 나귀의 대화를 통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제일 먼저

1. 작은 일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23]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 [25]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 [27]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28]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던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고,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짓누르기도 하고, 마침내는 발람 밑에 엎드려 버렸습니다. 화가 난 발람은 그 때마다 나귀를 때렸습니다.

급기야는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까지 합니다.

[30]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발람을 제지하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리게 하셨는데, 발람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고는 하나, **일상에 생기는 일들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떠올려 질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일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질문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2. 나귀가 감사제목입니다.

[33]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의도대로 되지 않자 발람은 나귀를 때리고, 향하여 화도 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로 인해서 나귀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귀가 발람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나귀는 살고 발람은 죽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발람에게는 짜증과 분노의 원인 제공자였던 나귀가 사실은 그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나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은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하는 준비된 축복의 통로이자, 감사의 제목일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불편함과 생각 거리들에 대해서 감사하면, 영적으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소서.
2.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로 여기며,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